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하이힐의 이미지를 통한

형태변형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학과

김 민 형

하이힐의 이미지를 통한  
형태변형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학 과

김 민 형

# 인 준 서

김민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예술은 현실세계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산물로서, 예술에 있어서 인간의 주변상황과 일상적 삶의 경험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일상의 경험을 통해 보여지는 사물들은 끊임없는 반복적 행위들의 결과물로서, 그것은 더 이상 일상의 사물이 아닌, 하나의 환상속의 사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환상속의 사물로서의 대체물로 하이힐을 선택하였다. 하이힐은 배트맨의 가면처럼 평범한 일상의 나날들을 벗어난 정의로움을 발산하는 슈퍼히어로(super hero), 슈퍼우먼(super women)으로의 변신을 가능케 하는 마법적인 대상인 것이다. 본인의 힐의 향연은 도시의 여성들에게 이러한 힐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여성들, 특히 작가본인 에게 있어 하이힐은 현실에서 이상으로, 이상에서 다시 현실로 넘나드는 하나의 환상속의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대량생산품이자 소비대상인 하이힐을 통해 현대 여성들의 존재와 생활이 투영된다.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하이힐의 이미지와 상징들을 토대로 형태의 변형을 통해 작품화 한다. 일상의 오브제인 하이힐을 통해, 이상공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작품을 통해 표출해 낸다. 이러한 본인의 작품의 소재의 선택과 사용은 팝아트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리하여 본문에서는 본인의 작품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팝아트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작품분석을 통해 작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나아가, 본인의 작품에 도입된 대중예술로서의 팝아트가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를 수용함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인 작품의 형성배경과 근원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인의 대중적이고 유희적인 표현을 통해, 대중과 예술과의 간격을 좁혀 소통의 매개(媒介)로 삼아, 모든 매체(媒體)를 조각의 범주로 포괄하여 작업과정과 작품을 논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	---

##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3
1-1. 팝아트	3
1-2. 하이힐의 상징	5
2. 조형적 특성	8
3. 작품분석 및 기법	12

III. 결론	37
---------	----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1000개의 수세미로 만들어진 크나큰 하이힐.....	12
【작품 2】 또각또각-하이힐이 말이돼? .....	15
【작품 3】 진화를 꿈꿔버린 다리 .....	18
【작품 4】 쇼핑과 구속.....	20
【작품 5】 킬힐-목발과 신발.....	22
【작품6】 하이힐을 질투한 코르셋.....	24
【작품7】 INSIDE STORY. I-VOLCANO.....	27
【작품8】 INSIDE STORY.II-Walk inside!!·8.....	29
【작품9】 삼쌍둥이.....	31
【작품10】 인조 뱀무늬 가죽 하이힐.....	33
【작품11】 소비심리를 경험하는 드로잉 55점.....	35

## I. 서론

예술이 삶의 체험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미술은 시각언어를 통해 삶에서 보고 느끼고 새롭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또 다른 세계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곁에 널려있는 수많은 사물들은 한 시대를 공유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깊숙하게 관계되어 왔다. 이러한 수많은 사물들은 저마다 각각의 존재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읽혀진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K.Jung, 1875-1961)<sup>1)</sup>은 “예술은 상징이다. 작가가 경험한 것, 지각한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상징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sup>2)</sup> 상징은 단순히 사물들을 지시하고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을 통해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예술가는 사물을 표현함에 있어 사물의 외적인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개개인이 해석한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표현은 그 사회성과 더불어 나타나며, 이를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소재로 등장한 사물의 상징을 통해 표현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물, 그 중에서도 많은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는 하이힐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의 상징적 해석을 이미지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 속 하이힐은 여성용 신발로서의 단순한 기능을 벗어나 상품, 그리고 성적인 물신의 대상으로 본다. 이를 조형적으로 변이하여, 구축적이고 절제된 새로운 형태로 제시하여 하이힐이 가지고 있는 문화·사회적 상징들을 토대로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이힐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하이힐의 모습을 재 분석하고, 그 상징을 바탕으로 조

---

1) 칼 융(K.Jung, 1875-1961) :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分析心理學)의 창시자

2) 아니엘라 야페,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열화당, 1995/p138

형적 특성과 주관적 의미를 분석하여 조형화 하고자 하였다.

즉, 하이힐을 단지 신고 다니는 하나의 사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대변하는 표현의 매개체로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본인의 작품 속 소재의 선택과 사용의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 팝아트 이론이 바탕이 되었다. 팝아트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작품분석을 통해 작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대량생산품이자 소비품목인 하이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 자체가 인간의 의지로 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며,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는 물신화된 힘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작품제작 방법은 하이힐의 형태를 토대로 형태의 다양성에 비중을 두어 제작하였으며, 이는 하나의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시선, 상징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색의 사용에 있어서도 화려한 색감을 도입하여 형태의 시각화를 유도하였다.

이에 본고는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하이힐의 이미지를 통한 형태변형을 연구하여 본인의 작업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본론

### 1.이론적 배경

#### 1)팝아트

팝아트(Pop Art)는 1950년대 초 영국에서 그 전조를 보였으나, 본격적으로 195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 추상 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숙성에 반대하고 매스 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 문화적 시각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팝아트라는 용어는 1954년 영국의 비평가인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가 매스컴 광고문화에 의해 창조된 ‘대중예술(Popular)’에서 유래하였으며, 일상생활에 범람하는 기성이미지인 대중적 이미지에서 제재(題材)를 취했던 미술의 경향을 일컫는다.

영국의 팝 아트는 사회비판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범이나 관습에 대해 비판적이다. 영국 작가로 해밀턴을 비롯 P.블레이크, D.호크니, R.B.키타이, E.파울로치 등이 있으며, 특히 해밀턴이 바람직한 예술의 성질로 열거하고 있는 것들, 예컨대 순간적, 대중적, 대량생산적, 청년 문화적, 성적(性的), 매혹적, 거대기업적인 것 등은 현대 대중문화의 속성을 그대로 압축해놓은 것이다.

팝 아트의 성격은 미국적 사회환경 속에서 형성된 미술에서 더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미국 팝 아티스트인 R.라우션버그와 J.존스는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각종 대중문화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팝아트의 소재는 주로 소비사회의 대중문화에서 얻어지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매스 미디어, 상품광고, 쇼윈도, 고속도로변의 빌보드와 거리의 교통표지판 등의 다중적이고 일

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코카 콜라, 만화 속의 주인공 등 범상하고 흔한 소재들을 미술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적 구조를 불식시키고, 산업사회의 현실을 미술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로인해 사회와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여러 부분이 접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팝아트의 표현기법에는 유화, 조각, 꼴라주, 판화 등 시각예술의 여러 작업들 즉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의 재료를 도상, 기법, 관례적 표현의 소재로 사용했던 전문적 예술가들에 의해 제작된 방법들이 망라 되는데, 직접적으로 감지된 현실이 아니라 그래픽디자인이나 대중매체 가운데 발견되는 현실에 대한 기존의 표현을 그 음미의 대상으로 삼고 팝 이미지의 소재들은 테크놀로지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대량 생산되고 전파되는 여러 가지 품목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또한 팝아트는 오브제(Objet)에 전폭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작가들은 주로 상투적이고 흔한 소재들을 즐겨찾는다. 말하자면 늘 만나며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쉽게 버릴수 있는 것들이다.

미국 팝 아트의 대표적 작가는 A.워홀은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등 대중문화의 스타나 저명인사들을 캔버스에 반복적으로 묘사하거나 임의적인 색채를 가미함으로써 순수고급예술의 엘리티시즘<sup>3)</sup>을 공격하고 예술의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일련의 작품을 발표했다. 소비적인 경향을 지닌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소비품목에 대한 이들 작가들의 선호도는 유다른 데가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이는 하이힐은 이러한 팝아트의 형성배경과 개념을 토대로 선택되었으며, 그 중 대중적인 이미지 중 하이힐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미지화 하고 주관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호나 산물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

3) 엘리티시즘:엘리티시즘이라는 것은 엘리트주의, 엘리트(Elite)를 추구하는 성향이라거나 엘리트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함.

택했다. 특히 오브제의 이미지를 그 자체로서 사용하고, 그 이미지를 반복, 변형을 통해 일반적인 소비상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예술과의 접근을 시도했다.

본인은 이처럼 대량생산품이자 소비대상인 하이힐에 현대 여성들의 존재와 생활을 투영하고자 한다. 대량생산품과 대중문화를 하이아트(high art)의 소재로서의 사용을 팝아트와의 유사성에서 찾아보았다. 특히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신발에 대한 애정은 아마 본인의 하이힐에 대한 애정과 필적할 것이다. 캠프벨칸과 마를린 먼로의 대량생산된 사진들과 같이 워홀에게 신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아이콘이다. 프레드릭 제미슨의 주장처럼 그의 신발에는 인간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상품화된 이미지일 뿐이다. 이렇듯 본인의 하이힐 작품은 이런 팝아트의 대중적 이미지를 끌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작품의 진열방식에 있어서도 상점의 디스플레이 방식을 끌어드려 팝적인 요소들을 가미하고 있다.

## 2) 하이힐의 상징

상징은 알려진 이 세상에 대상물을 통해서 미지의 것을 암시하는 방법이며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상징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상징은 본래 증거물을 의미했지만 나아가서는 일정한 표정(Zeichen)으로써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형상(Sinnbild)을 가리키며 더욱이 오늘날에는 대개 감각적 형상이 그 본래의 의미에 덧붙여 비 본래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어떤 관념이나 사상을 구체적인 심상이나 사물을 통해

암시하는일. 또는 그 사물이나 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상징은 서로 다른 대상들끼리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상징은 어느 대상을 표시하거나 본래의 고유한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방식이다.

사물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인간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의 물체였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숨어 있는 욕망(慾望)이나 꿈,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질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은 자연의 세계와 사상의 세계를 예술작품이란 오브제를 통해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상징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지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물체나 형태를 상징으로 전환시키며 그 상징들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였다. 많은 상징물 중 하이힐을 주제로 하여, 복합적인 표현을 이루어 냈으며, 하이힐의 형태변형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본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징체계의 대체물로 본인은 여성들이 즐겨 신는 하이힐이라는 사물을 선택했다. 21세기 초 많은 여성들에게 '슈어홀릭'<sup>4)</sup>이라는 트렌드를 양산해 낸 것처럼 인류 역사상 구두만큼 강한 상징성을 지닌 사물도 드물다. 영화와 책, TV시리즈 속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구두는 강한 상징성을 드러낸다. 왕자님이 신겨주는 유리구두에 발을 밀어넣는 순간 모든 슬픔이 사라지며 행복해진 신데렐라 이야기,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루비 구두를 신은 도로시 이야기는 구두가 여자의 욕망과 꿈을 실현시키는 상징적인 오브제임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구두는 팜프파탈과 섹스어필, 위험한 도구의 상징으로도 표현된다. 한번 보면 도저히 신지 않을 수 없는 매혹적인 빨간구두를 신고 춤을 멈출 수 없어 결국 다리를 잘라냈다는 잔혹한 스토리가 담긴 안데르센의 '빨간구두'나 크리스티아나 브랜드의 추리소설 '하이힐 살인'은 구두가 가진 치명적인 유혹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

4) 슈어홀릭(Shoeholic) : 구두중독, 구두에 빠진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

에다. 구두는 그렇게 판타지와 공포스러운 경외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존재로 여성의 습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

신발은 단지 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과 신분을 높일 수 있는 마술로 보기도 한다. 신발에는 왕자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인 신데렐라의 구두와 같은 여성의 환상과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신발에 발을 넣는 순간 여성은 미인이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장 보드리야르<sup>5)</sup>가 말하는 ‘광고기호를 소비하는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유럽의 귀족들이 평민과 차별화된 구별 짓기를 했듯이 구두를 신으면 남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신분상승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신발은 인간의 욕망을 담는 사회적 기표가 되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하이힐은 은유적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다. 작품을 보는 관람자들을 판타지로 데리고 가는 대상들이며 그 판타지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비현실적 언어로 유혹하는 대상인 것이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이힐의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진다. 그 크기가 확대되어진 하이힐은 인간의 욕망을 가시화하며 【작품1】, 그 대상에 다른 유기체들을 결합함으로써 【작품2】 섹시함을 드높이기도 한다. 또한 하이힐을 상승의 이미지, 즉 커지려는 욕망의 이미지로 보고 상징화하여 표현 【작품3】 하였으며, 치명적인 유혹자로서의 하이힐 【작품10】 로 표현되기도 한다. 반대로 하이힐을 통한 신체불구화와 구속과 속박을 상징하며, 마지막 작품에서는 하이힐을 보면서 느끼는 소비심리를 작품에 연결시켜 표현 【작품11】 하기도 한다. 하이힐을 신는 주체자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상징을 통해 조형화하며, 이는 다시 소통의 매개체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5)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7-2007) :프랑스의 철학자·사회학자. 대중과 대중문화, 미디어와 소비사회 이론으로 유명하다. 현대인은 물건으 기능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하였고,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한다는 시뮬라시옹(Simulation)이론, 더 이상 모사할 실재가 없어지면서 실재보다 더 실재같은 하이퍼리얼리티(극실재)가 생산된다는 이론을 제창했다.

## 2. 조형적 특성

고대의 어원에 의하면 이미지(image)라는 말은 이미타리imitari(모방하다)의 뿌리에 결부되어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sup>6)</sup> 유사적인 재현<복제>는 단지 상징들의 단순한 유착이 아닌, 진정한 기호체계를 생산한다. 이미지는 다시-보여주는 것 Representation, 즉 요컨대 재생이며, 그리고 우리는 관념적인 것이 체험된 것에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고있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에서 보이는 형태변이는 본래의 이미지-하이힐의 이미지를 모방하여 재생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하이힐이라는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하는 표현(expression)인 것이다. 예술에 있어 주제가 내용으로 구체화되면 그 주제는 불가피하게 어떤 변형(transfiguration)을 가져온다. 본인은 이러한 체계를 거쳐 상상력에 의하여 새로운 감정으로 재 배열된다. 연상된 이차원적 이미지를 3차원 공간이라는 조각으로서 형태를 구축해 나가며 본인의 내적심상을 통해 의식과 개념을 지시한다. 하이힐이 가지는 상징을 통해, 본인의 주관과 감성대로 재해석하여 표현한다. 시시때때로 느끼는 이미지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을 통해, 표출되는 여러 가지의 형상들은 다시 조형성을 띠게되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본인의 작품 소재이자 주제는 하이힐이다. 상품, 그리고 성적인 물신의 대상으로서의 하이힐은 여성용 신발로서의 단순한 기능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와 크기, 그리고 상징으로 변주된다. 작품 [또각또각-하이힐이 말이 돼?] 【작품2】는 실제 크기의 하이힐에 깔끔한 표면처리와 무늬가 찍혀있으며, 굽은 말의 하반신으로 변모한다. 대여섯 가지의 포즈를 취한 말 형태의 굽

6) 이미지와 글쓰기, Roland Barthes, 김인식 역, 세계사, 1993, p.86

은 전시장에 올려 퍼지는 구두 굽 소리와 말발굽의 소리를 중첩시킨다. 본인에게 하이힐은 변신을 가능하게 하는 마술적인 대상이다. 신발은 동서고금으로 물신의 대상이 되어왔다. 서양의 신데렐라 이야기부터 동양의 전족에 이르기 까지 작은 발을 만드는 신발은 성적 대상이었으며, 현대의 하이힐은 관습이라는 외적 강제 없이도 여성 스스로가 즐겨 착용하는 패션의 주요 품목이 되었다. 본인이 고안한 하이힐은 부분과 부분이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부분이 전체를 표상하는 성적인 페티시즘의 특징을 보여준다.

말의 엉덩이와 결합된 높은 구두 굽은 섹시함을 드높인다. 인체의 일부인 발은 주물이 되는데, 하이힐은 성기의 모양을 강조 한다. 가변적으로 설치되는 이 작품은 또한 상품 진열의 형식을 갖춘다. 작가는 은밀한 성적 환상을 상품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일상적 현실로 불러온다. 작품에서의 물신은 성과 상품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다양한 하이힐들은 번지르르한 표층으로 파편화되고 재구성되는 물신적 이미지와 관련된다. 몸은 통일성을 상실하고 단편들로 해체되며, 그 자체로 자족적인 활기를 띠고 꿈틀거린다. 전체에서 잘려진 부분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물신적인 도착이다. 작품 [진화를 꿈꿔버린 다리] 【작품3】는 높은 구두에 적응하다 못해 그자체가 높은 구두가 되어버린 다리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발은 구두의 좁은 틀에 맞춰 형태가 변해있고 짐승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 쇠사슬에 매달린 몸은 고통과 쾌락이 결합된 감정과 잔인한 진화의 메카니즘을 폭로한다. 작품 [하이힐을 질투한 코르셋] 【작품6】은 하이힐에 맞춘 까치발 형태를 조이는 코르셋 가죽 끈이 묶여있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위해 자르고 조이고 주입하는 성형 강박을, 그리고 작품 [킬힐 Kill heel-목발과 신발] 【작품5】은 하이힐이 야기하는 신체의 불구화와 치유를 나타낸다. 뽀족한 구두는 쾌락과 아름다움을 위한 고통과 인내를 표현하며, 이는 매저키즘적인 성욕과 관련된다. 브론즈로 만들어진 [삼쌍둥이] 【작품9】는 한 켤레의 신발에 굽이 하나만 있는 형태를 가진다.

분열 또는 접합의 이미지는 정상적인 생식에서 비켜나는 기형적 성을 예시한다. 작품 [인조 뱀무늬 가죽 하이힐] 【작품10】은 삼쌍둥이와 마찬가지로 하이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구두의 소재로 잘 사용되는 뱀가죽을 입히고 날름거리는 혀를 첨가하여 치명적인 유혹자로서의 여성적 섹슈얼리티를 표현한다.

구두와 여성 성기가 중첩되는 물신적 구조는 작품 [Inside Story I-Volcano] 【작품7】와 [Inside Story II-Walk inside!] 【작품8】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자는 버려진 액자에 작가의 하이힐을 넣은 것이고, 후자는 하이힐 내부의 외형을 통해 감추어진 발과 여성의 질을 교차시킨다. 물신숭배자는 신발같은 비 생식적 기관을 에로틱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것들에게 성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작품 [1000개의 수세미로 만들어진 크나큰 하이힐] 【작품1】은 이러한 욕망이 기념비화 된 형태를 갖춘 것이다. 복잡하게 꼬인 쇠수세미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LED조명과 음향장치가 결합된 이 작품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시화한다. 억압의 결과 상실된 대상을 반복적으로 대체하는 사물들은 결코 완전한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다. 물신을 통해 표현된 욕망은 상품이 지배하는 현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쇼핑과 구속] 【작품4】은 새 등지와 새 다리로 된 굽이 결합된 하이힐이 쇼핑카트와 함께 설치된 작품인데, 새 다리를 꿈꾸는 여자의 욕망이 파국적인 소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쇼핑 카트의 쇠틀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끝없이 소비해야하는 질곡을 철장을 연상시키는 사물을 통해 표현한다. 작품 [소비심리를 경험하는 드로잉] 【작품11】 같은 크기의 철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하이힐을 둘러싼 소비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55개의 작은 판들에 형상화된 것들은 유기적인 총체성을 이루지 않는 단편적인 이미지로, 관객의 상상에 따라 우회적으로 연결될 뿐이다. 그것은 어떠한 내용 이든 동일한 형식에 담아 코드화시키는 상품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본인의 작품이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되는 것은 물신과 상품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

는 방식에 의해서이다. 작품 속 화려하고 기묘한 하이힐들은 몸과 사물에  
각인된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들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3.작품분석 및 기법



【작품1】 1000개의 수세미로 만들어진 크나큰 하이힐/3000\*2000\*800mm/  
철수세미(스텐레스스틸),LED조명,음향장치/2008 - 야경설치사진



【작품1】 1000개의 수세미로 만들어진 크나큰 하이힐/3000\*2000\*800mm/  
철수세미(스텐레스스틸),LED조명,음향장치/2008 - 실내설치사진

**【작품1】** 1000개의 수세미로 만들어진 크나큰 하이힐

크기 : 3000\*2000\*800mm

재료 : 철수세미(스텐레스 스틸), LED조명, 음향장치

제작년도: 2008

제작방법: 3000\*2000\*800mm의 하이힐 형태의 철 구조물을 용접하여 제작한다. 백색 LED조명을 철 구조물에 설치한 후 쇠수세미 늘려 알루미늄 철사로 꼬아, 형태를 잡아간다. 하이힐을 신고 걷는 여성들의 신발소리를 녹음 후 함께 설치한다.

작품설명: 인간의 욕망이 기념비화 된 형태를 갖춘 [1000개의 수세미로 만들어진 크나큰 하이힐]은 복잡하게 꼬인 쇠수세미 조직으로 되어있다. LED조명과 음향장치가 곁들여진 이 작품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가시화한다. 작품의 표면은 여성의 상징적 오브제인 수세미가 쓰였다. 수세미는 여성들만의 전유물로서, 그 표면이 굉장히 날카로운 쇠 조직이며, 하나하나 엮여진 수세미들은 여성들의 상징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하나의 커다란 구조물이 되어버린 대형 하이힐을 더 이상 발을 담는 공간이 아닌, 인간의 욕망의 결과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억압의 결과 상실된 대상을 반복적으로 대체하는 사물들은 결코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작품에서 물신을 통해 표현된 욕망은 상품이 지배하는 현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한, 빛의 사용으로 전혀 다른 공간성을 제시하고 일상의 공간에서 빛을 킴으로써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며, 이는 환상속에 하나의 사물로 보여지는 것이다. 거대해진 하이힐로 작가자신이 걸어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통해, 사물에 대한 구속과 속박을 이야기 한다.



【작품2】 또각또각-하이힐이 말이돼? /

가변설치 / FRP, 우레탄 도색, 신발박스 / 2008

Installation view



**【작품2】 또각또각-하이힐이 말이돼?**

크기: 가변설치

재료 : FRP, 우레탄 도색, 신발박스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레진을 이용해 하이힐의 형태에 뒷 굽부분을 말의 하반신으로 표현 한 5가지의 다양한 포즈를 만든뒤 실리콘 성형을 통해 FRP로 복제한다. 에디션 10번까지 떠낸 후 사포질로 마감한다. 그 위에 세페이스로 상도를 올린 후 우레탄 도색제로 컬러감을 준다. 작품의 표면처리를 위해 코팅제로 마감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두들은 신발 매장의 디스플레이 형식을 빌어 전시장에 가변 설치된다. [1000개의 수세미로 만들어진 크나큰 하이힐] 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구두소리가 담긴 음향장치와 함께 설치된다.

작품설명 : 어느날 하이힐을 신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여자의 뒷모습에서 말의 다리가 중첩적으로 그려졌다. 이를 토대로 하이힐의 앞 부분과 구두의 굽에 말의 하반신으로 변모된 이 작업은 실제크기의 하이힐에 깔끔한 표면처리와 무늬가 찍혀져 있다. 대여섯가지의 포즈를 취한 말 형태의 굽은 전시장에 올려 퍼지는 구두 굽소리와 말발굽의 소리를 중첩시킨다. 말의 엉덩이와 결합된 높은 구두 굽은 하이힐의 상징인 섹시함을 잘 표현해준다. 말발굽, 구두굽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개의 형태를 조합한 작업이며, 같은 이름을 가진 것들은 같은 기능을 한다는 동형동성설을 대변해 주는 작업이다. 표면에서 보여지는 색의 사용에 있어서도, 명도와 채도가 높은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 구두가 가진 화려함을 더욱 가시화 하였다. 가변적으로 설치되는 이 작품은 구두의 디스플레이 형식을 빌어, 환상속에 사물을 현실로 이동시킨다. 구두라는 사물에 대한 구속 속에서 어찌면 달리는 하이힐을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작품3】** 진화를 꿈꿔버린 다리 /

300\*400\*1000mm / FRP,우레탄 도색, 체인 / 2008

### 【작품3】 진화를 꿈꿔버린 다리

크기 : 300\*400\*1000mm

재료 : FRP,우레탄 도색, 체인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마네킹의 하반신에 진화된 하반신을 흙 작업한다. 여기서 진화된 하반신은 본인의 상상에 의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흙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석고로 그 틀을 떠내고 FRP성형을 한다. 사포질로 마감을 한 후 하도로 서페이스를 올려 다시 마무리 한다. 그 위에 백색 우레탄 페인트를 올리고, 반짝임을 강조(미래적인 느낌을 주기위함)하기 위해 진주 필가루를 한번 더 칠한다. 마지막으로 코팅효과를 주기위해 우레탄 코팅제를 이용해 두께감을 준다. 마무리가 된 하반신에 체인을 고정시켜 설치한다.

작품설명 : 인체의 기본 구조는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때부터 이미 확립되어 있던 것이지만, 환경에 대해 서로 달리 적응을 하며 인체의 구조는 변화한다. 미래의 여성들은 하이힐이라는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항상 높은 이상에 대한 갈망을 현실에서 까치발을 들고 다니는 생활형태로 적응해 나간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들의 다리의 뒷꿈치는 발달하여, 마치 하이힐의 굽처럼 변모하고, 더 이상 하이힐이 필요 없어진 여성들은 이제 하이힐을 신지 않고도 밖을 다닐 수 있다. 이러한 발은 동물의 발 형태로 진화하게 되고, 새끼발가락은 탈락되게 된다.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작업은 인간의 욕망이 인체의 진화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쇠사슬에 메달린 하반신은 고통과 쾌락이 결합된 감정과 잔인한 진화의 메카니즘을 폭로한다.



【작품4】 쇼핑과 구속 /

830\*560\*950mm / 쇼핑카트,FRP,깃털,레진,주트, 2008

#### 【작품4】 쇼핑과 구속

크기 : 830\*560\*950mm

재료 : 쇼핑카트,FRP,깃털,레진,주트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흙 작업을 통해 새의 형태를 만든뒤 FRP떠낸다. 사포 마감을 한후 깃털을 붙인다. 다리부분은 레진을 이용해 디테일을 살렸으며, 그 위에 우레탄 도색제로 킬러를 입히고, 코팅제로 마감한다. 실제 사용되는 쇼핑카트를 뒤집은 후, 만들어진 새다리의 하이힐을 그 안에 넣어 설치한다.

작품설명 :

새 다리를 꿈꾸는 여성들, 가늘고 길에 뺨은 새 다리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욕망을 새다리 형태를 한 하이힐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하이힐은 여성을 새의 다리와 깃털은 이상(높이 올라가고 날아가고싶은 욕망)을 이야기한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이상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표현한 작업이다. 여기서 보여지는 쇼핑카트는 여성들의 쇼핑중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브제이다. 이 두 개의 결합을 통해 새 다리(이상/理想)를 꿈꾸는 여자의 욕망이 파국적인 소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카트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그것은 마치 쇠창살에 갇힌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5】 킬힐-목발과 신발 / 가변설치 / 나무,목발 / 2008

## 【작품5】 킬힐-목발과 신발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나무, 목발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나무로 20cm높이의 하이힐 깎은후, 사포로 마무리를 한다. 그 위에 스테인을 이용해, 작품의 색감의 깊이를 준다. 나무 목발(기성품)과 함께 설치한다.

작품설명:

“20cm힐을 신고 걷다 다리가 부러질 지언정 하이힐을 포기할수 없다. 목발을 차더라도 하이힐을 신을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sex and the city의 여자주인공이 이런말을 한적이 있다. 하이힐이 야기하는 신체의 불구화는 잊은지 오래다. 발목이 부러지고, 무지외반증으로 고생을 한 지언정 하이힐에서 내려올 수 없는 여성들의 이런 단적인 예가 어찌면 현대인의 사물에 대한 중독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목발을 통해 신체의 불구화를 표현한다. 뽀족한 구두는 쾌락과 아름다움을 위한 고통과 인내를 표현하는 것이다.



【작품6】 하이힐을 질투한 코르셋 /

가변설치 / FRP,가죽끈,차량용 도색 /2008

## 【작품6】 하이힐을 질투한 코르셋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FRP,가죽끈,차량용 도색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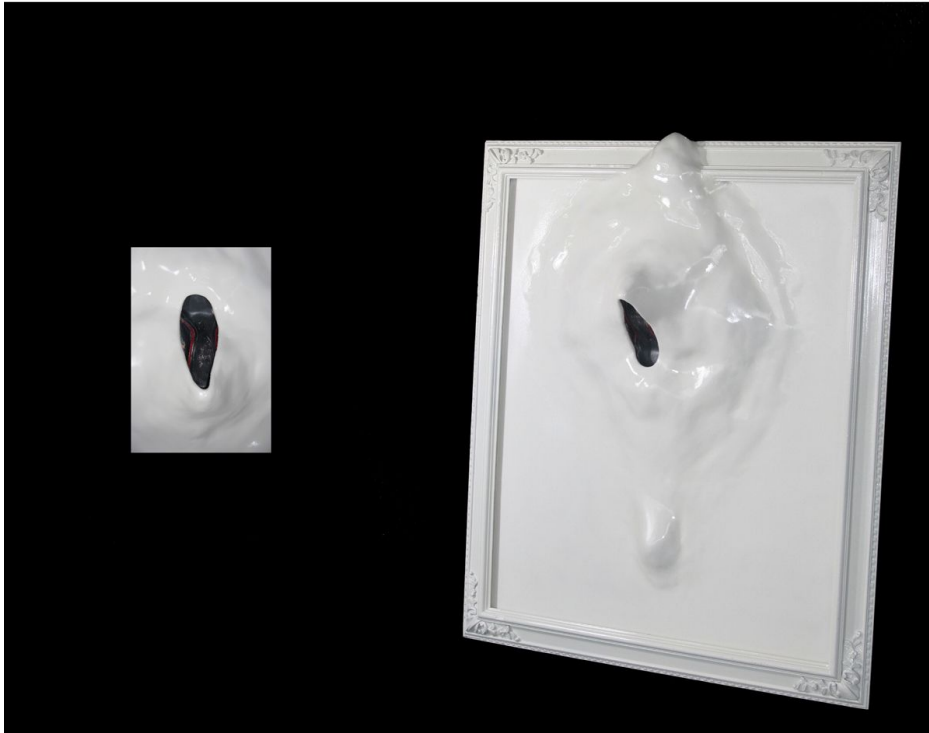
작품1. 본인의 발을 캐스팅한뒤 FRP성형을 통해 발 형태를 만든다. 사포로 마감한 후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다. 코르셋의 재료로 사용되는 징을 그 구멍에 박은 후 우레탄 도색을 한다. 도색이 끝나면 가죽끈을 이용해, 발을 쪼인다.

작품2. 본인의 발을 캐스팅한뒤 FRP성형을 통해 발 형태를 만든다. 하이힐의 앞 라인을 토대로 발가락을 절단한다. 사포로 마감한 후 우레탄 도색한다. 작품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 엄지 발가락에 무게중심을 실어 설치한다.

작품3. 높은 구두를 신은 본인의 발을 캐스팅한 후 FRP성형을 통해 발 형태를 만든다. 뒷축이 올라간 발만 떠낸 FRP에 다시 흠작업으로 발 지지대(발 코르셋)를 만든다. 만들어진 발 코르셋을 FRP로 떼내고, 우레탄 도색한다. 도색이 끝나면 발 형태에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아 발 코르셋과 발을 가죽끈을 이용해 쪼이고 높인다.

작품설명 : 2009년 3월 20일자 ABC뉴스에서는 미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수술을 소개한바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스텔레토힐에 발을 맞추기 위해 발가락을 절단한다는 기사이다.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 발을 맞추는 시대가 도래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여성들은 흔히 코르셋을 착용한다. 잘못된 허리, 봉긋한 가슴, 풍만한 엉덩이를 만

들기 위해 입어온 코르셋이 이제는 발을 통해 보여진다. 스텔레토 힐이 아주 알맞게 맞을 발을 위해 발에 나사를 박고, 쪼이고 높인다. 코르셋으로 허리를 너무 쪼여 장 파열이 된 어느 여자의 이야기처럼, 내 발을 자르고 높이고 쪼이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이힐에 대한 구속, 어쩌면 이것이 현대 여성들의 사물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 결과물은 아닐까?



【작품7】 INSIDE STORY . I -VOLCANO /

900\*1000\*200mm / 버려진 액자, 버려진 구두 , FRP, 우레탄 도색 /2008

## 【작품7】 INSIDE STORY.I -VOLCANO

크기 : 900\*1000\*200mm

재료 : 버려진 액자, 버려진 구두 , FRP, 우레탄 도색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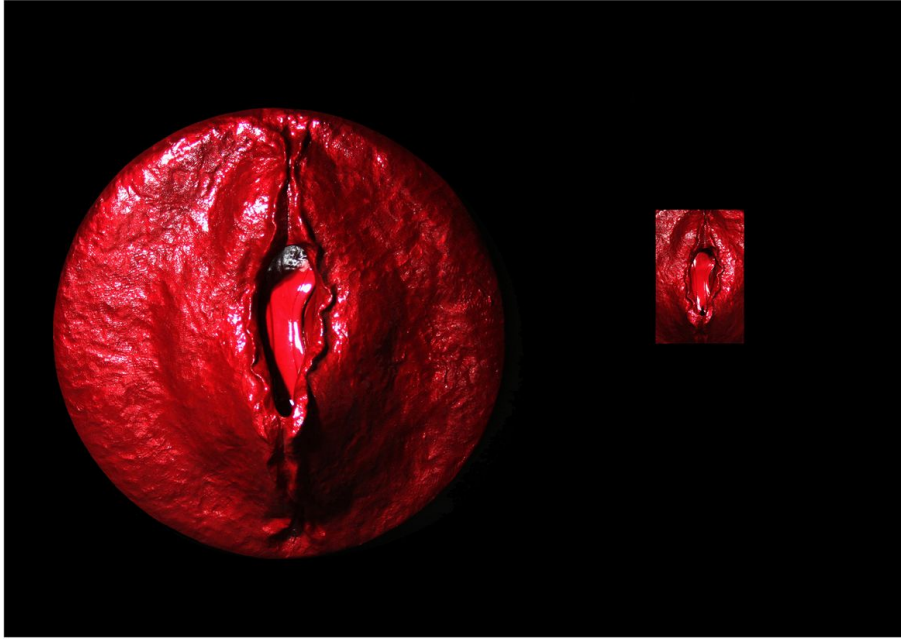
본인이 신던 하이힐의 내부를 화산의 분화구라 생각하고, 그 주변을 마치 화산처럼 흙작업한다. 흙작업이 끝난 후 표면은 매끄럽게 정리하고, FRP성형을 한다. 떠내진 형태를 사포마감하여, 버려진 액자에 끼워 넣는다. 신발의 내부는 그대로 사용되고, 겉 부분만 우레탄 도색한다.

작품설명 :

내부의 중심공간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공간으로서 즉 핵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만들어져가는 나이트의 동심원처럼 생명체의 조직이 발전해가는 원천으로서 그 상징적 의미가 중시되어 현대조각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물질의 중심에 그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생명을 준 에너지의 원천이 있다는 일루전을 창출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INSIDE STORY.I -VOLCANO] 는 이런 내부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본인이 신던 신발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화산형태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분화구의 내부엔 화산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의 원천적 공간이며, 이런 공간을 신발의 내부로 대체하였다.

## Walk Inside!!



【작품8】 INSIDE STORY.II-Walk inside!! /

500\*500\*160mm / FRP, 우레탄 도색, 액자 / 2008

**【작품8】** INSIDE STORY.II-Walk inside!!

크기 : 500\*500\*160mm

재료 : FRP, 차량용 도색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하이힐의 내부를 석고로 떠낸후 FRP성형을 한다.FRP성형한 내부에 흠작업을 통해 여성의 성기를 만든다. 흠의 표면에 수건을 이용해 느낌을 살린후, 다시 석고로 틀을 떠낸다. 떠낸 석고 위에 FRP를 발라 만들어 낸다. 붉은 계열의 우레탄 페인트를 이용해 도색을 한후 코팅제로 마감한다.

작품설명 :

제 1세대 여성미술가들은 예술의 소재로 등장하지 않은 여성의 성기를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를 컨트아트(Cunt art)라고 하며, 그들은 여성의 신체적 이미지를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인사이드 스토리 II] 는 일종의 컨트아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신발의 내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외부에 여성의 성기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작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무언가를 밀어 넣는다는 행위’ 를 할수 있는 두 개의 것을 하나의 것으로 조합한 작업으로, 원형으로 된 틀은 영원성을 상징한다.



**【작품9】** 삼쌍둥이 / 300\*200\*150mm / 브론즈 /2008

**【작품9】** 삼쌍둥이

크기 : 300\*200\*150mm

재료:브론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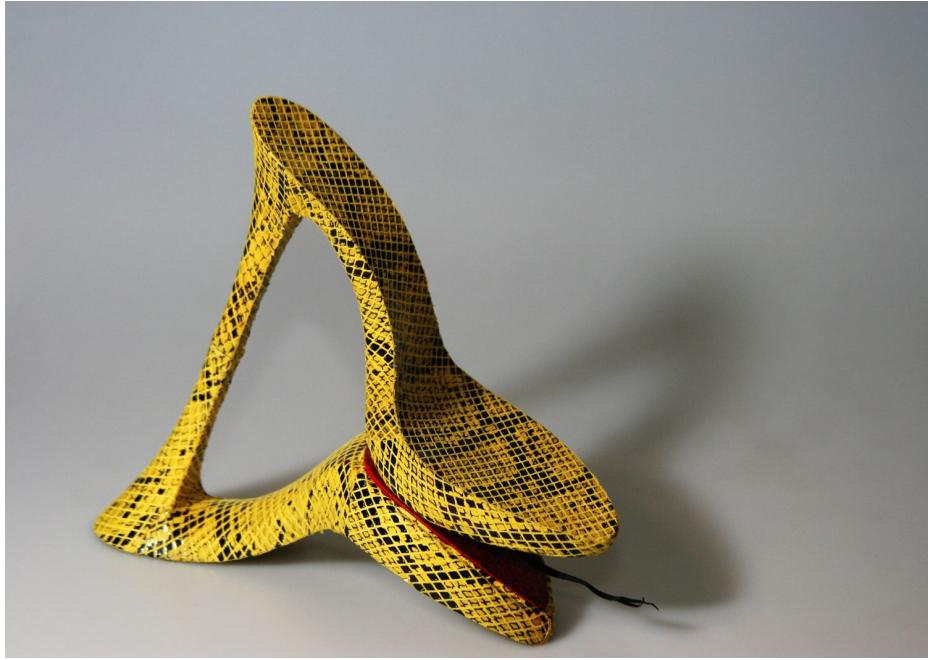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두쌍의 하이힐을 준비한 후 뒷부분을 잘라 하나로 조합하여, 부분 사이에 레진을 이용해 형태를 만든다. 만들어진 하이힐을 FRP로 떠낸후 브론즈 성형한다.

작품설명 :

삼 쌍둥이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의 일부가 결합되어 있는 쌍둥이를 칭한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삼 쌍둥이는 여성의 상징을 하이힐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되었다. 화장실도 같이 가는 여자들, 손을 꼭 잡고 가는 여자들, 마치 쌍둥이 처럼 꼭 붙어다녀야 하는 여자들의 습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구두라는 오브제의 조합을 통해 가시화한다. 이것은 결국 젠더라는 성을 제시한다. 한 쥬리의 구두에 굽이 하나만 있는 형태는 분열 또한 접합의 이미지로 정상적인 생식에서 비껴나는 기형적 성을 제시한다.



【작품10】 인조 뱀무늬 가죽 하이힐 /

250\*200\*80mm / 구두, 인조 뱀 가죽, 동판 / 2008

**【작품10】** 인조 뱀무늬 가죽 하이힐

크기 : 250\*200\*80mm

재료 : 구두,인조뱀가죽,동판

제작년도:2008

제작방법:

구두 제작의 기초가 되는 바닥 라스트를 준비한후, 인조 뱀무늬 가죽을 형태에 맞게 붙혀나간다. 붙힌 두 개의 라시트를 바닥 부분이 말당게 고정시킨다. 바닥과 바닥 사이에 공간에, 동판을 잘라 만든 뱀의 혀바닥을 붙혀 설치한다.

작품설명 :

구약성서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뒤에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과, 선과 악, 창조적인 성(性)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알게된 뱀가로 이브는 출산의 고통을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불모의 땅을 경작해야하는 고통을,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결국엔 먼지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을 지불했다.

부분과 부분의 조합으로 탄생된 이 작업은 여성의 치명적 유혹자로서의 여성성을 위에서 설명한 뱀의 상징을 통해 표현된다.



【작품11】 소비심리를 경험하는 드로잉 55점 /

(200\*200mm)\*55 / 철판, 분체도장, 혼합재료 / 2008

**【작품11】 소비심리를 경험하는 드로잉 55점**

작품 크기 : (200\*200mm)\*55

작품 재료 : 철판, 분체도장, 혼합재료

제작 년도 : 2008

제작방법 :

절곡한 55개의 철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하이힐을 둘러싼 소비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아크릴물감을 이용해 그리기도하고, 오브제를 붙혀 하나의 판을 완성하기도 한다.

작품 설명 :

누구나 가지고 싶은것이 있다. 특히 본인에게 갖고 싶은것,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은 하이힐이다. 누구나 구두매장에 쇼윈도의 구두를 보며, “사고싶다, 갖고싶다.”는 욕구가 생긴적을 경험했을 것이다. 화려한 프린트와, 화려한 장식들, 매끈하게 빠진 디자인을 보면 어떤 여자가 그것을 쉽사리 지나갈수 있을까? 소비심리를 경험하는 55개의 드로잉은 인간의 소비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구두라는 소재를 통해 이야기한다. 55개의 작은 판들에 형상화된 것들은 유기적인 총체성을 이루지 않는 단편적인 이야기로 관객의 상상에 따라 우회적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어떠한 내용이든 동일한 형식에 담아 코드화 시키는 상품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물신과 상품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그것을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시킨다.

### III. 결 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가는 그가 속해 있는 시대의 대변자라는 것을 지각해야한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작가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자연관이나 가치관을 서로 주고받게 된다. 본인은 그런 상호 연결의 매개체로 하이힐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였다.

하이힐의 이미지가 갖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조형적인 형태를 시지각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하이힐의 형태변이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작품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팝아트의 개념과 이미지의 변형을 통한 상징을 통해 하이힐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물에 대한 상품화와 물신화를 토대로 현대인들의 모순을 되짚어 보았다. 또한 하이힐이라는 오브제에 대한 상징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형태변형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물에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오브제(하이힐)의 변형을 통해 가시화 한다.

하이힐의 상징으로 변주된 작품들은 하이힐의 이미지 변형으로 보여졌으며, 이것은 조각, 설치, 드로잉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졌다. 작품 속 하이힐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된 공간이며, 물신과 상품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방식에 의해 작품의 사회적인 확장을 꾀하였다.

이를 통해 공존하는 인간과 사물의 상호 연관작용에서 그 이미지를 배경으로 의미를 찾았다.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수 있는 사물을 작업의 소재로 사용하면서 좀더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고자 하였다. 일상의 사물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인간과 사물의 소통관계를 재 인식하고, 사물의 변형의 통해 자아표현에 대해 논하였다. 인간의 내면에 생동하는 감각이나 상상력 그리고 잠재의식으로 새로운 예술작품을 창조해 냈으며, 이러한 창

작활동에 나타나는 오브제를 주관적인 감정이입으로 전환시켜 단순한 물체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본인의 내면세계를 조형화하려 했다.

다채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기르고 재료탐구와 기술적인 연구를 하여 다양한 현대미술의 맥락속에서 자리매김 하는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 논고를 마친다.

## ABSTRACT

A study about the sculpture,  
imagery and significance of the high-heel in Art

Kim, min hyung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 is intrinsic to the real world and the experiences within which we live. We are all products of art. Art is all around us. Human beings' everyday life experiences and surroundings are the scene for art life. Daily life is built upon the experiences of taking everyday acts and constantly repeating them. One can get lost in the daily struggle of life and the appreciation of beauty and art transcends us to a higher plain. Possession of art allows us to possess beauty and illusions of it. My illusion of beauty is represented by the art form of the high heel. To wear high heels makes a woman feel like she is on top of the world. No longer living the ordinary life, she feels more sexy, confident, beautiful, she leaves behind the shackles of mundanity to encompass on all

powerful, righteous evocative woman capable of stepping up to a higher level. The high heel itself although not as comfortable or practical as everyday shoes, is an elegant, beautifully designed shoe. To achieve beauty requires hard work, talent, commitment, to achieve the dizzying heights of perfection, sacrifices are heeded. The slight impracticality of the high heel are nothing compared to the beauty, power, confidence and feeling you achieve to stand on top of the heels. Like on all conquering superhero, superwoman making it possible to make a change to people's lives. The benefit of high heels mean you look taller, and make you legs slimmer and longer. This illusion has aesthetic appeal to many women. A recent study suggested that wearing heels may improve the tone of a woman's pelvic floor and overall posture. Inspired by pop artists, I took the subject of reality and added pop twist. Reality becomes an illusion pop art was introduced to the masses through ordinary communication, example advertising, therefore becoming an easier method for conveying your art. I have chosen pop art as a method for introducing my art to the people for them hopefully to enjoy. Art is beauty, beauty is art, high heels are beautiful and therefore high heels are art.

## 참 고 문 헌

가에탕 가티앙 드 클레람보, 「여성의 에로틱한 열정과 페티시즘」, 강응섭 역, 숲, 2003

김문환, 「19세기 문화와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김지영, 「슈어홀릭」, 정서가, 2008

롤랑 바르트, 「이미지와 글쓰기」, 김익식 역, 세계사, 1993

박기웅, 「현대미술이론, 형성출판사」, 2003

송희정, 「앤디워홀의 예술세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아니엘라 야페,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열화당, 1995

앙겔로레 에버펠트, 「유혹의 역사-이브, 그 후의 기록」, 강희진 역, 미래의 창, 2009

오광수, 「전환기의 미술」, 열화당, 1995

윌리엄 A.로시, 「에로틱한 발」, 이종인 역, 그린비, 2002

장 보드리야르, 「소비와 사회」,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1

조르류 나타프, 「상징, 기호, 표지」, 김정란 역, 열화당, 1997